

#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하고 혼란

글\_ 김성애 · 중앙여고 보건 교사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는 참대 한마당이라는 학교 축제가 열렸다. 교내에서 남학생이랑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는데, 교감선생님이 앞에 있어도 뻥히 보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내에서 이성과 손잡고 당당해 하는 모습은 얼마 전 만해도 꿈도 꾸지 못했다. 물론 건전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도 교내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학생들의 성의식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육기성세대만은 구태의연한 것은 아닐까? 이 시대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청소년 자신들이 변화하고 있는 성인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왜 그렇게 보는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상담하고 있다. 그 아픈 마음 밑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녹아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통제가 있게 되면, 자녀는 답답함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속만 썩는다. 힘이 있는 아이들은 성행위나 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터트리지만, 힘이 없는 나약한 아이들은 마음이 꺾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름시름 마음의 병을 앓고 자기를 둘러싼 세상이 우울해 보이면서 무력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학년에 상관없이 이성교제에 몰두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받는 상처를 쌓아둔 상태로 이성교제에 들

어가면 그 문제가 그대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존중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아이들이 이성교제에 빠지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화를 입게 되거나, 아주 사소한 일로 상대방과 싸우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 부모와의 관계가 이성교제에서도 나타나

내가 경험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느 친구는 20명 정도의 남자를 사귀었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생각해 보기도 전에, 단지 상대가 자신과 사귀는 말에 흠뻑 빠져서 사귀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관계를 끝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었다. 왜 그런지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니 동생과의 편애로 발생한 그 아픈 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자들을 만나면서 풀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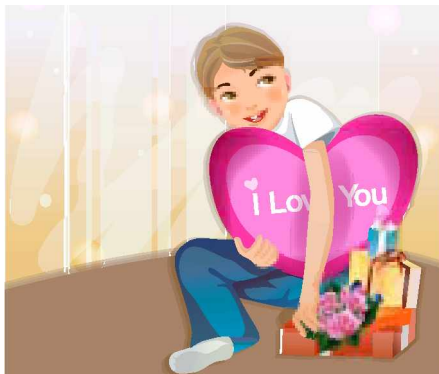
두 번째의 경우는 너무 열애에 빠진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불안해하던 친구는 이유를 알고자 하였다.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의 경우는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한 달 이상을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에게 향한 분노를 한 번도 말하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에게도 관계가 깨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가 폭발하여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남

자친구도 여자친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여자 자신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몰랐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몰라서 깨어 버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네번째의 경우는 대학생 오빠와 만나면서 정기적인 성적 나눔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친구는 콘돔을 자기 가방 안에 늘 가지고 다녔는데, 친구가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너무 이상한 아이라고 멀리하는 바람에 정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상담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친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낳은 후, 할아버지를 버리고 유부남이랑 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러한 자신의



엄마한테 질려 버린 아버지는 문란한 상대신에, 극단적이고 편협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아버지한테 질려 버린 딸은 성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결국 자신의 할머니와 똑같은 성행동을 하고 있었다. '좋으면 성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던 이 친구도 자신의 가계에 흐르는 역동을 보면서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성인식이나 성태도 역시 자존감과 직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존중 받아본 경험들이 없는 아이들은 이성교제에 빠지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화를 입게 되거나, 아주 사소한 일로 상대방과 싸우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도록

사랑과 성은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도 볼 줄 알고 상대의 내면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도 귀하게 여기고 성행위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혼전 성행위가 데이트에 개입된 후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가 버렸다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나, 혹은 환상을 갖고 살게 되고, 이것이 아니더라고 느낀 후에 관계를 끝내게 되면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상처받고, 해매이게 되는 것이다. 혼전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혼을 해도 행복하

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청소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이제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배워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두려움만 조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는다. 성병 안 걸리고 피임하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산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먼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내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들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 스스로가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